

설날 가정예배 순서지

사도신경 ----- 다함께
찬 송 ----- 559장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기 도 ----- 가족 중에 한 사람
성경봉독 ----- 이사야 46장 9-10절

2016년의 설날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태초에…”는 “시작에…”라는 뜻입니다. 역사는 스스로 생겨나서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셔서 역사를 진행하십니다.

우리가 한 해의 시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2016년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며, 한 해의 모든 일이 그분의 말씀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의 시작에 끝을 함께 알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6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루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올 한해 우리의 삶을 통해 펼쳐 가실 마지막까지의 일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후에도 하나님은 매일 우리가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그분 앞에 앉아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한 날을 마치기까지 걸어갈 길을 우리에게 안내해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귀 기울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안내를 받는 “길”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루하루 걸어갈 길을 발견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잃지 않고 인생에서 걸어갈 길도 잃지 않으며 마침내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을 맞이할 것입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온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온가족이 매일의 삶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매일의 마침에서 하나님을 향해 감사를 드리며, 한 해 마지막에 하나님께 받은 큰 복으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 송 -----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기도문 ----- 다함께